

전문사서(Special librarian)의 필요성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金 光 永

(부속도서관 정리주임)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의미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많은 발전과 변천을 가져왔다. 실로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체이다.¹⁾ 이와 같은 발전과 변천을 한 현대의 도서관에는 과연 당면한 과제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도 없이 논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도서관 실무를 통하여 체험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많은 과제 가운데에서 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밝혀 두어야 할 일은 전문사서와 일반사서(General librarian)와의 차이점이다. 전문사서라고 하여 正司書나 準司書²⁾라는 의미가 아니라, 司書資格證을 소지하고, 또한 전공분야에 대하여 연구(research)를 계속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 일반사서란 전공분야, 혹은 부전공분야가 없이 사서자격증만을 소지한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 물론 사서자격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전문사서에 대한 논의는 理想的 생각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에도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근거는 도서관은 자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³⁾을 전제로 하는, 모두를 위한⁴⁾, 이용자의 것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1) Ranganathan, Shiyari Ramarita 의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2)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 참조

3) Ranganathan, S.R., Ibid. Books are for use

4) Ibid. Books are for all

5) Ibid. Every book its reader

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시간⁶⁾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겠끔 신속, 정확하게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겠다. 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도서관 제반업무에 있어서 제기되었으나, 선택업무, 분류업무, 참고업무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1. 선택업무

자료(주로 도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原則이 필요하다. 그 근거는 건전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함이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효율적 봉사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선택의 원칙은 도서관의 목적과 성격 내지는 이용자의 요구 및 도서관의 장서구성도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⁷⁾

종합대학교 도서관은 敎育課程 뿐만아니라 敎授陳의 研究活動을 支援한다는 任務를 자각하고 선택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研究活動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그 集書의 傾向이 學述的인 것 내지는 利用頻度가 낮으며 高價이지만 價値⁸⁾가 있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또한 外國의 學術機關刊行物 및 政府刊行物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요 그 자료는 이용자의 것이며, 나아가서 이용자가 참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들에게 각자의 專攻分野에 관한 資料選擇에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⁹⁾ 또한 도서선정위원회를 두어 자료선택에 임 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는 교양과정부를 포함하여 13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이 있으며, 107개의 學科가 설치되어 있다.¹⁰⁾ 이와같이 많은 學科 내지는 전공분야가 있으므로 도서선정위원회가 名實共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선택의 원칙이 수립되고, 수립된 원칙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McColvin의

6) Ibid. Save the time of reader

7) 圖書館實務便覽 p.254-7 日本圖協編, 大學圖書館の業務分析 1968. p.45-49

8) McColvin 은 需要가 많은 것은 價値가 적고, 價値가 높은 것은 需要가 적다고 말하고 있다.

9) 圖書館實務便覽 p.280

10) 서울대학교 요람 1970-71 참조

利用者의 要求 中心의 選擇理論¹¹⁾에 입각하여 教授들에게 資料選擇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료선정에 있어서 교수들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서관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과, 자료의 빈곤으로 인한 접촉의 기회가 적고, 제도상에서 오는 번잡성때문에 몇몇 교수들만의 협조로서는 장서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Gray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서구성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統計的 分析에 根據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인도 자료의 評價에 필요한 外國語 및 전공분야에 대한 실력을 배양¹²⁾하여야 하겠다.

2. 분류업무

도서관에 수입되는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整理가 되지 않으면 圖書의 量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利用하기 어렵다. 도서관의 存在價値는 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利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正確히 이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使命이므로 窮極的目的인 奉仕活動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는 整理가 先行되어야 한다.

分類는 圖書整理의 첫 段階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分類는 類似한 것을 모으고, 또는 類似한 것, 類似하지 아니한 것을 程度에 따라 事物을 排列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의 分類란 많은 圖書館 資料(주로 圖書)를 그 內容의 主題(때로는 形式)의 類似性에 따라 一定한 圖書群을 만들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論理的인 順序에 따라 配置하여 도서의 이용을 能率的으로 하기 위한 技術이다.¹³⁾

圖書는 一時的 要求에 應하기 위해서 分類하지 말고, 오래도록 有用하고 第一 많이 利用되기 쉬운 곳에 分類한다. 著者나 書名下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分類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主題아래에 찾을 것인가 하는 것

11) McColvin, Lionel Roy,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1925.

12) 日本圖協編 Ibid. p. 47

13) Richardson, E.C., Classification, theory & Practical.

을 考慮하여 分類하여야 한다.¹⁴⁾

실무상으로 分類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難關에 봉착하게 된다.

가. 어떠한 資料이든지 分類表에 의하여 分類를 하여야 한다. 分類를 함에 있어서 학문의 체계, 내지는 한층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몇몇의 분류자의 지식으로 학문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도서를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특히 純粹科學과 技術科學 分野의 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더욱 科學에 對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나. 다른 하나의 애로점은 語學에 대한 문제이다. 대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견주어 볼 때 外國書가 비교적 많다. 분류를 함에 있어서 日語, 中國語, 英語, 獨語, 佛語에 대한 문제는 고사하고서라도 이태리語, 스페인語, 라틴語, 희랍語, 월남語, 태국語 등으로 쓰여진 도서의 분류문제는 학문의 세분화와 앞으로 빈번하리라고 예측되는 국제교환도서를 상기하여 볼 때 자못 심각하다고 하겠다. 어학사전을 동원하여 書名정도 찾아가지고 분류한다는 것은 도서의 主題에 의하여 細密한 分類¹⁵⁾를 하라는 規定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다. 또 다른 하나의 애로점은 分類表에 없는 主題에 對한 문제이다. 分類表에 設定되지 않은 主題를 다룬 著作은 가장 가까웁고 비슷한 關係가 있는 主題와 함께 분류한다. 이러한 主題의 圖書가 많아서 新主題의 設定이 必要하면 이것을 爲한 項目을 新設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分類表 自體가 機械的이고 人爲的이며, 論理的이 아닌 곳이 많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分類表에 新主題를 設定함에 있어서 學的인 전개에 의하여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된다.¹⁶⁾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분류업무에 있어서의 난점 내지는 限界에서 어학과 학문적 배경이 있는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Shores 가 지적한

14) 仙田正雄著, 圖書分類規則 p.12-13

15) 森耕一著, 分類作業 1956, p.70

16) 日本圖協編 Ibid., p.56

바와같이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情報를 提供(information service)¹⁷⁾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자료의 평가(appraisal) 내지는 해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참고업무¹⁸⁾

참고업무는 利用者의 要求와 情報源(information source)과를 連結시키기 위하여 利用者에 對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行動하는 奉仕業務이며, 그 管理(Supervision)이다. 환언하면 參考奉仕는 그것이 奉仕活動組織의 基本機能임을 자각하여, 利用者에 對해 恒常 모든 협조를 組織的이고 計劃的으로 行하여, 利用者 個個의 問題 解決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고봉사의 사명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參考司書는 藏書를 지키는 사람이오, 準書記的 業務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司書의 能力에 對하여 不安과 不信을 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하며 또한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클리프트 워슨博士는 『發展知識과 傳達體制』란 제목의 강연에서 『옛날처럼 學者가 출판물을 통해서 그들의 얻은 지식을 보급할 수는 없다. 자기의 전문분야의 학자라도 이를 다 읽어 낼 수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을 고집하면 오히려 逆機能이 생기고 누적된 많은 지식은 활용해보기도 전에 老朽化한다. 오늘날의 지식은 점점 短命해져 가고 있다. 工學의 경우 5~7년만 지나면 그 지식의 半은 이미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科學技術의 發展은 전문분야의 세분화와 出版物의 增加 및 刊行物의 形式變化를 가져 왔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사서의 惠擇을 받지 않고는 학술 연구에 있어서 높은 成果를 기대하기란 곤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참고사서는 資料의 提示 내지는, Rotshtein 이 지적한 바와 같이 資料에 內包되어있는 情報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잡지의 내용에 대한 색인작업¹⁹⁾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

17) Shores, L., Basic reference sources, 1954.

18) 日本圖協編 Ibid., p.80-85

19) Ibid. p.89

러한 의미에서 국회도서관에서 편집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서울대학교에서 간행되는 「외국학술잡지색인」은 참고봉사를 함에 있어서 자못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색인은 해방 이후에 간행된 학술잡지의 기사색인이다. 해방 이전에 간행된 학술잡지에 대한 기사색인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방 이전에 간행된 학술잡지 가운데에는 특히 인문 사회과학계 등의 잡지는 학계에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색인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는 공공도서관과 달리 그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가 교수, 학생이니 만치 참고도서에 대한 지식은 물론, 어느 정도 세분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²⁰⁾ 전문사서가 아니고는 소기의 목적을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그러므로 奉仕面에서 調查研究에 必要한 資料의 檢索뿐만 아니라 專門主題에 關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배양하여 調查研究에 積極的으로 關與하는 態勢로 轉換發展시켜야 한다. 예를들면 이용자가 “Aristoteles의 中庸思想”에 關한 論文을 작성하기 위하여 參考司書에게 찾아 왔다면 Aristoteles의 倫理學著書, 주석서, 비평서 및 그에 관련된 論文 특히 학술잡지에 게재된 論文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발취함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자료선택, 분류업무, 참고업무등 도서관 전반에 걸쳐 전문사서가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사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끔 도서관의 제도 및 여건이 주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문사서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새로운 가치관과 대우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사서는 도서관의 봉사자인 동시에 이용자로서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아울러 각자의 전공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20) Ibid. p.84